

## 제5강 죽음을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 2

자살은 ‘끝’이 아니다<sup>세 번째 이유</sup>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감행한다. 자살로 자신의 삶과 함께 모든 문제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살하는 것이다. 이렇듯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가 있다는 생각에 대해 과학적으로 증명해보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죽음은 과학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과학이란 살아있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아있는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루어낸 학문이기 때문이다. 즉 죽음 문제는 과학의 연구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믿음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하던 사람이 막상 자살로 생을 마친 후에 새로운 삶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삶은 행복할까?

자살자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지만, 거꾸로 많은 사람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무자비한 힘과 대면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죽음을 절망 그 자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삶의 포기’ 내지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더 나아가 죽음을 무찔러야 할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까지 있다. 사는 게 너무 허무하고 고통스럽다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시간만 연장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죽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죽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공포와 두려움이 얼룩진 표정으로 숨을 거둬으로써 남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만 남기게 된다. 죽음을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하거나 죽음을 적으로만 간주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만 가득 안은 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자연스런 삶의 과정이다. 진정한 의미의 적은 죽음 자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무지이다. 죽음에 대해 무지한 까닭에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요, 또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죽음은 무서운 현상’이라고 기정사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한 마음으로 삶에 대한 만족감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모습으로 죽어가는 현상을 보더라도, 죽음은 그 자체로 두려운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죽음을 평화롭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한 가지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이러한 습관은 지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점점 더 증진되고 점점 더 견고하게 그 사람 안에 자리잡게 되며, 심지어 잠자는 상태까지도 지배하게 된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바로 이런 습관적 경향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죽음 이전의 마음 상태 그대로, 습관적으로 생각해온 삶의 방식대로 죽음 이후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달라이 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죽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성냄, 집착, 공포 같은 감정으로 마음이 크게 혼란스럽다면, 평화롭게 죽을 수 없음 또한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평화로운 죽음을 희망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자신의 삶 속에서 평화를 일구어야 한다.<sup>1)</sup>

사람은 그가 누구건 그가 살아온 모습과 살아온 마음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삶을 더 의미 있게 살면 살수록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역시 더 평안하고 후회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바로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순간이건 죽음 이후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지금의 이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기 삶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죽음의 순간과 죽음 이후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 죽음에 직면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곧 삶의 거울이다. 자살하는 사람의 경우도 여기에 비춰보면 그 행위의 잘잘못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자살은 가장 불행한 죽음의 방식에 속한다. 왜냐하면 자살로 인해 그의 삶, 죽음의 순간, 죽음 이후가 모조리 불행한 것으로 추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는 앞에서 말했듯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다름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그의 삶은 문제가 있었고 죽음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살하면 모두 끝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는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진지하게 되물어 보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죽게 마련이다. 따라서 죽음 준비는 곧 삶을 준비하는 것과 다른 것일 수 없다. 죽음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자살의 유혹 앞에서야 겨우 죽음을 생각할

---

1) 소갈 린포체, 『티베트의 지혜』, 8-9쪽.

게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준비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되물어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과 직결되므로, 잘 사는 사람만이 잘 죽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죽음의 가장 불행한 방식인 자살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 자살할 수 있는 ‘권리’란 없다<sup>네 번째 이유</sup>

자살자들은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마치 인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자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고 자살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에게는 과연 자신의 판단 여하에 따라 자살할 권리가 있을까.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들은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빼앗는 행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권리인 양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장 아메리(Jean Améry)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살은 절대적 개성, 즉 자기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속한다는 것의 절대적 표현이며 절대적 정체성의 표현이다. 자살하겠다는 결정은 자유로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sup>2)</sup>

인용문에서처럼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의 자기 결정권, 자살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 존재의 절대적 개성, 절대적 정체성을 자살을 통해서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얼마 전 모 여대의 대학신문 기자로부터 “자기 뜻에 따라 자살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라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다. 기자는 다짜고짜 “자기 생명은 각자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요? 인간에게는 자살권이 있지 않은지요?”라며 막무가내로 나의 확인만 받으려고 했다. 이 정도의 질문밖에 할 수 없는지 한심한 생각이 들어 전화를 끊었던 씁쓸한 기억이 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 이런 생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적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살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행위이다. 한편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이다. 그런데 장 아메리의 주장대로 인간에게 자살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면, 살인의 권리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이든 살인이든 다만 대상이 다를 뿐, 생명을 훼손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사회적으로 이 두 권리가 인정된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더 이상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이고 나아가 ‘사회’는 성립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살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면 인간이란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동물과 다른 게 무엇이 있겠는가? 따라서 자살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2) 토마스 브로니쉬, 이재원 역, 『자살』 (이끌리오, 2002년), 125-126쪽; Jean Améry, On Suicide: A Discourse on Voluntary Death (1976).

자기 존재가 자기에게 속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 굳이 자살을 통해서 이를 주장해야 할까. 자살은 자기 존재를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절대적 정체성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폐기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인간답게 살다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존재를 주위 사람에게 아름답게 각인시키는 행위, 자기 존재의 절대적 정체성을 재확인시켜 주는 숭고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점을 노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생이불유(生而不有)’ 생명을 낳았으며 자기 소유로 삼지 말라.<sup>3)</sup>

자신의 생명이든 자녀의 생명이든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곧 우리에게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인간에게는 자기 생명을 자기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은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자녀나 배우자와의 동반자살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설령 부모가 자녀를 낳아 키웠다 해도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자살의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존엄한 죽음의 권리’가 있다.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다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 우선된다. 대개의 사람들은 인간답게 사는 권리는 생각해 보지만, 존엄하게 죽는 권리는 별로 생각해본 일이 없다. 평화롭고 밝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인간답게 살았다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죽음의 존엄성은 삶의 존엄성과 똑같이 중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자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리를 일거에 파괴시키는 행위이다. 다른 어떤 기본권보다도 우선하는 기본권, ‘존엄한 죽음의 권리’를 해치는 짓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은 똑같지가 않다. 퀴블러 로스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이 죽어 가는 모습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나는 퀴블러 로스가 정리한 유형들 외에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과 바람직한 죽음 방식을 더해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절망과 두려움, 2. 부정, 3. 분노, 4. 슬픔, 5. 삶의 마무리 또는 타협, 6. 순응 또는 수용, 7. 희망, 8. 마음의 여유와 웃음, 9. 밝은 죽음이 그것이다.<sup>4)</sup>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저마다 다르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에도 건강한 죽음과 그렇지 못한 죽음이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평온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자살과 같이 인위적인 방식으로 삶을 마감하는 죽음이 바로 건강하지 못한 죽음이다. 또한 위의 9가지 죽음의 유

3) 『老子』 제2장.

4) 오진탁, 『마지막 선물』, 61~112쪽.

형 중에서 첫 번째 절망과 두려움이나, 두 번째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세 번째 자신의 죽음에 분노하는 반응 등도 역시 건강하지 못한 죽음의 유형에 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고 싶은 만큼이나 건강한 죽음을 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마치 불행한 죽음을 바라기라도 하듯 죽음 앞에서 크게 흔들린다.

자살과 같이 건강하지 못한 방식의 죽음을 선택한다면, 그의 삶 역시 건강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런 자살이 인간의 최고 권리인 자유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인간은 자살을 통해 최고 형태의 인간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나는 유감스럽게도 자살을 통해 이러한 자유에 도달했다는 증언을 어떤 자살미수자에게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내 경험의 폭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그런 자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그런 자유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죽어서 정말로 행복했는가?” 자살로 자유를 진정 실현했다고 해도, 그 자유란 그저 ‘자유롭다’는 말밖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자유일 뿐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에는 바로 당사자의 삶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죽는다고 말한다. 자살을 택한 사람의 삶이야말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는가.